

각계 전문가 모여 지역 중심 통합돌봄 전달체계와 돌봄 생태계 논의

- 제4차 지역사회 통합돌봄 포럼 개최 -

- 시군구·읍면동 전달체계 및 지역사회 돌봄 생태계 조성방안 논의 -

【관련 국정과제】 78.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통합돌봄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9월 30일(수) 오후 2시, 비엔디파트너스에서 「제4차 지역사회 통합돌봄 포럼」을 개최하여 '지역 주도의 통합돌봄 운영 체제 발전 방향'을 주제로, 지방정부, 보건소, 연구기관 등 각계 전문가가 모여 지역 중심 통합돌봄 전달체계 구축 방안과 지역사회 협력을 통한 지역돌봄 생태계 조성 방안을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첫 번째 발제는 민소영 경기대학교 교수가 '지역중심 통합돌봄 전달체계 구축 방안'을 주제로, 지역 중심 전달체계의 5대 기준(책임성, 전문성, 충분성, 접근성, 통합성)을 제시하고, 전달인력 운영 개선, 읍면동 진입 장구 일원화, 취약지역 공공 직영 돌봄센터 설치, 보건소 참여 확대 등을 강조과제로 제시하였다.

두 번째 발제는 김연아 성공회대학교 교수가 ‘지역사회 협력을 통한 지역
돌봄 생태계 조성 방안’을 주제로, 소규모 기관 중심의 분산된 공급구조와
기관 간 협력의 한계를 설명하고, 협력체(컨소시엄)형 지역돌봄사업, 마을
돌봄센터 조성, 주민 돌봄일자리 창출 등 협력 기반의 돌봄 생태계 조성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중앙사회서비스원 강혜규 원장을 좌장으로**, 지방 정부, 보건소, 연구기관, 언론 등 **각계 전문가가 참여해 지역 중심 통합**

- 1 -

돌봄 운영체계의 발전 방향과 현장 적용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번 포럼은 현장 참석과 함께 국민 누구나 온라인으로 실시간 시청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었다.

박재만 통합돌봄지원관은 “통합돌봄이 현장에 안착하려면 주민과 가장 가까운 지방정부가 중심이 되어 지역의 의료·돌봄 자원을 연계·조정하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가 함께 참여하는 기반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라며, “지방정부가 지역 여건에 맞는 전달체계를 갖추고 지역사회와 함께 돌봄 기반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제4차 지역사회 통합돌봄 포럼 개요

<별첨> 1. 지역중심 통합돌봄 전달체계 구축 방안(민소영)

2. 지역사회 협력을 통한 지역 돌봄 생태계 조성 방안(김연아)

담당 부서	통합팀 복지지원과	책임자	과 장 정혜은 (044-202-3580)
	통합팀 복지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이라향 (044-202-3581)



- 2 -

제4차 지역사회 통합돌봄 포럼 개요

1. 포럼 개요

- (목적) 전문가·지방정부·서비스공급자·이용자 등 다양한 관계자 의견수렴 및 소통을 통한 정책공감대 형성
- (일시·장소) '26. 9. 30.(수) 14:00~17:00, 비엔디파트너스 10호 회의실
- (주제) 지역 중심 통합돌봄 전달체계 구축 및 지역사회 협력을 통한 지역돌봄 생태계 조성 방안 논의
- (발제) 민소영 교수(경기대학교), 김연아 교수(성공회대학교)
 - (토론) 사회 이정은 부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좌장(중앙사회서비스원), 토론 김이배 전문위원(대한민국사회간접지출감소위원회), 정영림 보건소장(홍성군청), 이명준 통합돌봄TF팀장(경남특별자치도청), 이현주 선임연구위원(한국지활복지개발원), 진경하 논설위원(서울신문), 변성기 과장(북부부 통합돌봄사업과)

2. 진행 순서

시 간		주 요 일 정
14:00~14:10	(10')	인사말 보건복지부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
14:10~15:10	(60')	(1) 지역 중심 통합돌봄 전달체계 구축 방안 (민소영, 경기대학교)
		(2) 지역사회 협력을 통한 지역돌봄 생태계 조성 방안 (김연아, 성공회대학교)
15:10~15:20	(10')	휴식
15:20~17:00	(100')	지정 및 추첨토론

- 3 -